



##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6년 11월 발행 (제 79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프리페이퍼

나팔 HP :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  
목차:

◎권두 메시지 '대지진에 대해' 예레미야

◎시대를 깨닫는 '요가와 명상기도' H. F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

### <권두 메시지>

'대지진에 대해' 예레미야

오늘은 대지진 대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하고자합니다. 계시록은 종말의 날에 이제까지 없었던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것을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텍스트의 부분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18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움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6:19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여기에는 종말의 날에 "인간이 지상에 살고 이후 어느 때보다도 것으로, 그만큼 큰 강한 지진 '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도가 분리하거나 성읍가 뒤집혀 질 수 그려져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해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은 확실히 큰 지진이 전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큰 지진이 일어나기 설명과 이해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고, 지진이라는 것에 대한 비유를 이해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진 뒤흔들과 박해에 관한 비유>

그런데, 종말에 관련하여 지진이 일어나면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것을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24: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24:8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24:9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24:10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마태 설명서에도 종말의 날에 지진이 일어날 수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의 설명과 함께 올바른 기독교인이 "고통스러운 눈을 만나다 '것, 죽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미움'도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 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걸림돌 서로 배반하고 미워 서로"수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곧 교회에 대한 박해와 뒤흔든 그 결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쓰러져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진은 사실 교회와 기독교인에게 뒤흔들과 박해 그 것을 비유로 말하고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자 마을과 집이 붕괴하는 것입니다. 집이나 마을 교회와 교단의 비유이며, 교회가 뒤흔들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쓰러져 붕괴하는 것을 비유로 말하고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지진, 흔들어 박해가 허용 되는가? >

그런데, 종말의 날에 지진 즉 박해와 뒤흔들가 교회에 일어나는 것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문은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런 날 박해와 뒤흔들 일을 교회에 대해 허용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2:25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늘로 좇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나**

**12:26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12:27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과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12:28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부분을 살펴 보자.

**12:25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늘로 좇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나**

종말의 날에 지진이 일어나 박해와 흔들림이 일어나 많은 기독교인이 부진하고 감동을 받아 쓰러지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포인트 인 것입니까? 우리가 쓰러져 않기 위해서는 체재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요? 그것은 여기에 쓰여져있는대로, 말씀하시는 분 즉 성령의 음성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제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그 날 쓰러 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대로 듣고있는 사람은 그 뒤흔들 중에서도 체재 노력하겠습니다.

**12:26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는 땅이 감동을 받아 하늘도 흔들릴 수 그려져 있습니다. 천지의 의미도 비록이 사용되고있는 것 같습니다. 천지는 교회의 예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곳에서 천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은 온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대해 주님은 그것은 "하늘의 별, 해변의 모래 '의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인 또한 신약의 이스라엘인 기독교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입니다. 별은 하늘, 하늘과 모래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기독교인이 존재하는 장소로서 교회의 비유입니다.

천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땅은 세상에 속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래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 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날, 종말의 날에 감동을 받아 쓰러갑니다.

**"하늘도 흔드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 즉 하늘의 교회도 흔들리지 될 수 그려져 있습니다. 정통적인 신앙을 갖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교회도 감동을 받아 그 진정한 실체가 드러나고 버립니다.

하늘이 흔들릴 것이라고는 보통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표현입니다. 보통은 어떤 큰 지진이라도 하늘이 흔들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진으로 아무리 집이나 건물이 흔들려도 하늘의 비행기가 흔들림도없고 하늘을 나는 새가 교반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비유 표현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에는 전 세계 교회 전체가 흔들릴 것 같은 세계적 지진, 즉 박해와 동요가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요한 계시록 3 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에 쓰여져있는대로, 그 시련의 날 환난 시대는 전 세계에 그리고 교회 전체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하물며 환난 전에 끝한다 교회 등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27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과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교반 지진 핍박이 일어나는 이유가 써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진을 통해 "결코 흔들리지 될 수없는 것이 남아 있기"입니다.



Damage from 1964 Good Friday Earthquake at Tumagain Arm, Anchorage Credit: NOAA

**그 날, 큰 지진이 일어나 마을은 붕괴하였다**

이 곳은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져있는 것을 이해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 생각은 지진도 박해도 환난 시대도오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조금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지진 환난을 거쳐도 여전히 제대로 단단히 남아 것에 눈을 부어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지진으로 넘어 지거나 환난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반 그리스도인들은 단지이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눈여겨있는 것은 아닙니다.

**12:28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래서 나라 즉 교회를 우리가 지 으려고 할 때, 그 날, 즉 교반 날, 박해의 날을 전제로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날 우리 지은 집, 교회가 붕괴 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즉 교회를 지어야 것입니다.

<보물이란 무엇인가? >

그런데,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다음 학개 2:6 ~ 8 인용입니다. 이 부분도 살펴 보겠습니다.

**학개 2:6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교회가 흔들리지는 지진의 날, 즉 환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7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의 말이니라**

모든 국가의 보물을 가져다 내가이 집을 영광으로 채운다. 만군의 여호와 께서 말씀 하셨다.

왜 하나님은 곧이 종말의 날에 지진을 일으켜 환난 시대를 도래시키고 교반을 허락할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곧 하나님의 전에 "모든 나라의 보물을 가져다"데입니다. 보물은 이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체재하는 것을 계속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보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한다면, 지진 즉 환난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2:8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의 말이니라**

- 만군의 여호와와 의 말씀 이니라. -

보물은 구체적으로 금 것으로 여기 적혀 있습니다. 금은 용광로의 불을 통해 정제됩니다. 마찬가지로 시련의 불을 통해서, 게다가 체재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사람 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돈이며, 실버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첫 오순절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첫 오순절 4000 명, 5000 명의 군중이 이야기를 듣고 모여했지만 그들은별로 하나님 앞에 보물이 없습니다. 반대로 군중은 원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후에 태도를 바꿉니다. 예수는 컬트라고 듣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회당에서 쫓겨나"고 듣고 그들은 태도를 표변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중은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죽이는 가담 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진에 흔들리지하는 사람들이며, 보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에 체재하는 것을 계속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12 제자를 비롯한 제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까지 충실하게 체재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그들 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보물이며, 시련 속에서도 금은 믿음을 간직하고있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의 날이 스토리를 재현하게 될 것을 알고합니다. 종말의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로 체재하는 것을 계속 사람이 사람 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보물입니다.

### <하나님의 눈은 보물에 쏠려있다>

첫 오순절 하나님의 눈은 분명 보물이되는 적은 수의 사람들에 쏠려있었습니다. 그렇지 결국은 쓰러져 흔들리지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눈을 보물이되는 사람들에게 쏠리는 것은 재림 때도 마찬가지로임을 알아 봅시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도 눈을 보물에 쏘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을보세요.

**마태복음 13:44** ○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밭의 보물을 찾아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적혀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밭 즉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 즉 매입을합니다. 그러나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밭을 구입이 사람은 매입을 한 것입니다 만, 그러나 밭 전체가 보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의 유대인처럼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앞에 보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밭으로 확실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입

하고 구속을 받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눈은 보물에 부여 있으며, 박해를 거쳐도 게다가 체재하는 사람들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이 곳에서 속죄 그리스도의 희생의 진정한 목적이 조금 씨의 보물 인원으로 적은 수 보물을 얻기 위해서 행해진 것이 쓰여져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목적은 보물에 그리스도의 눈은 보물에 쏠려있는 것입니다. 그 것이 여기에 자연스럽게 쓰는 것입니다.

### <종말의 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선별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성경이 종말의 날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있는 사실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종말의 날에 분명히 그리스도인 사이에 선별이 더 의미가 있고, 동요가 차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이이 것을 말합니다.

이번이 부분은 지진, 뒤흔들고 통해 그리스도인의 선별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이 성경은 그날 기독교인의 선별을 말합니다.

1. 좋은 보리, 나쁜 보리 : 마태 복음 13 장
2. 좋은 생선 나쁜 물고기 : 마태 복음 13 장

### 3. 똑똑한 딸 바보 딸 : 마태 복음 25 장

이러한 부분에 등장하는 보리, 생선, 딸은 모두 기독교를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보리 빵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것으로 기독교의 비유입니다. 또한 물고기는 성령의 물속에 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비유입니다. 또한 딸은 그리스도에 시집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에서 그 주님의 재림의 날에 선별이 어떤 사람은 선택되어있는 사람은 選ばれず 반대로 그 죄와 불순종에 대한 그리스도의 분노를 살 수 그려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종말의 준비를하고 갑시다. 이상



노방 전도 때문에 체포 된 목사

### 시대를 깨닫는 '요가와 명상기도' H. F

시대를 분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대는 어떤 때일까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음식과 식재료에 신경을 쓰는 사람과 체육관에 가서 조깅이나 산책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가도 그중 하나 지요. 건강법으로 요가는 매우 인기가 일본에서도 완전히 정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잡지 포춘 중이도 요가와 동양적인 명상의 시장은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특집을 짜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등학교 등에서도 요가 클래스와 아이를 진정 명상을 도입하고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직원의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마인드 풀 네스라는 명상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가와 명상은 인기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적으로 점점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가 · 명상은 그 근간에 힌두교가 있습니다. 요가의 호흡법과 포즈는 힌두교의 신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명상 전, 불교 등 동양 종교의 것이기도 요가와 명상을하는 것으로, 힌두교와 불교, 선 등의 영향을 받고있는 것입니다. 뉴 에이지의 영향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악령의 영향을 크게 받고있는 것입니다.

는 지금의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YMCA 와 YWCA 는 요가 클래스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요가를하고있는 목사도 있습니다.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있는 캐나다 카톨릭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명상기도 가톨릭은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엔도 명상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개신교 교회에서도 명상기도를 이용하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션 계의 많은 대학과 신학교에서 명상 정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교적인 방법의 명상기도에 부담없이 도입하는 것은 위험 것입니다. 명상 진정시켜기도, 이렇게 들으면 좋은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성령이 아닌 악령의 영향을 받게됩니다.

**고린도후서 11:14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또한 기도는 분향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시편 141:2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5:8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 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고 있습니다 같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우리의기도는 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영의 인도 된기도는 주님 앞에 받아 들여지지 않음.

**출애굽기 30:9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레위기 10: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와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10: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분향 때, 여호와와 진노를 받아 불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영으로기도 할 때 여호와와 진노를 받아 멸망하는 것의 형태이며, 우리에게 경고가 아닐까요.

명상기도는 이교도의 영혼 귀신지도 된기도이며, 다른 분향 것입니다. 게다가 아론의 두 아들은 특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잘못된 향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악령에 의해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건은 지금의 신앙인들에게 경고이기도합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의 시대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른 영의기도를 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이 요가와 명상기도는 이교도적인 것을 부담없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유행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도 속에 이교도 신들의 방법을 도입하고 귀신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파악한다면 그 위험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교도의 것과 혼합하여 악령의 심각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멸망을 베풀어 버리는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자체가 세상을 스스로 가져와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교회에서도 악령적인 미혹이 많은 들어가있는 것입니다.

### **고린도후서 11:1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말하는 거니까 괜찮다라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 이상하게 빨리 시대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말씀에 따라 성령을 파악하고 시대를 깨닫지 않으면 안됩니다.



요가 명상